

#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

양신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프랑스 종교전쟁의 역사
- III. 성 바돌로매 축일(Le Massacre de Saint-Barthélemy, 1572.8.24.)의 대학살
- IV. 베자의 『백성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Du droit des magistrats*, 1574)
- V. 베자의 저항론에 대한 평가와 적용

**[초록]**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윤리와 갈등을 빚는 사회적 담론에 대항하여 신앙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떻게 사회적 담론에 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의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국가저항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 주제를 근대화의 포문을 연 베자의 『시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권리』(*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자의 국가 저항의 신학적 이론화 작업은 근대 국가의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앙부아즈의 음모사건(1560)에서부터 종교전쟁을 촉발한 바시 학살(1562)까지 다룰 것이다. 이 음모사건이 개혁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을 시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베자는 이 음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논제에 대한 베자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이후의 종교전쟁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가 백성의 저항을 이유를 박해를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고, 베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베자가 어떻게 국가 저항을 위한 이론적 작업을 하는지, 그의 글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언약, 자연법과 저항의 주체, 저항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베자, 국가저항, 자연법, 정치적 언약, 앙부아즈의 음모,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

논문투고일 2019.07.30. / 심사완료일 2019.08.14. / 게재확정일 2019.08.29.

## 1. 들어가는 말

국가에 대한 저항은 한국사회에서 7-80년대의 주요 주제였다.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사회개혁의 지향이 지금 우리의 자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난제에 부딪힌다. 동성애와 합법적 병역 거부가 교회에게 던지는 화두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sup>1</sup>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실존적 질문이다. 국가와 종교의 이념적 대립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두고 교회는 또다시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배경에서 칼빈의 뒤를 이어서 제네바교회를 이끈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의 국가저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베자는 왕정체제에서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서 있는 신학자이다. 한 국가 안의 두 종교, 절대왕정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체제를 향한 투쟁의 자리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정치 외교의 임무를 담당한 신학자이다. 기독교와 국가의 일치, 더 정확하게 말해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왕정체제에서 진리를 향한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신학자이다. 종교적 박해 아래에서 어떻게 참된 진리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문제였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권위에 복종이 아닌 저항을 주창한 그의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 땅에서 외쳐야할 뿐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당면과제는 동일하다. 하지만, 역사적 시대의 간격을 무시하고,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는 선부른 등치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당시의 왕정체제와 지금의 정치체제인 정교분리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전제 아래, 프랑스의 위그노가 참된

1 한기총의 전광훈목사가 한 '대통령 하야와 '청와대 진격'의 정치적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하며 한기총 해산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2019.6.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0114&ref=D>: 2019.7.1. 검색). 사랑의 교회의 헌당예배에서 이루어진 정치인들의 특혜논란도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2019.6.28.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사랑의+교회+정치인](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사랑의+교회+정치인), 2019.7.1. 검색).

진리와 왕권의 대립구도에서 고민했던 그 지점에서 신앙의 선배인 베자가 남긴 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베자는 프랑스의 정치적이자 종교적 대립구도에서 1574년 『시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권리』(*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최대의 비극인 민족전쟁이자 종교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쟁은 참된 진리를 목적으로 삼고 일어난 전쟁이다. 참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위그노들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은 한 종교개혁자의 삶을 담은 신학적 답변서이다. 지금까지 베자의 국가저항에 대한 연구는 칼빈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졌다. 칼빈의 정치사상을 다루면서 베자의 이 문헌을 다루었을 뿐이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이자 프랑스의 위그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에서 주목하여 베자가 쓴 국가저항권의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지 텍스트 분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에서 베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주목하면서 그의 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베자는 위그노를 대표하여 정치적 국가회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위그노를 위해서 수없이 길을 떠났던 목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걸어간 행보와 실천적 활동이 그의 신학적 사유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프랑스 개혁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베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베자가 국가 저항으로 사고가 전환한 이유와 국가저항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당시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종교적 관용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베자가 『시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권리』를 발표하게 한 프랑스의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논제를 정리할 것이다. 국가저

2 이상용, “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저항신학,” 『진리와 학문의 세계』 제21권(2010), 73-116. 전봉준, “위그노들의 정치사상,” 『개혁논총』 제17권(2011), 75-119. 단지 아쉬운 점은 프랑스의 역사와 관련한 설명이 생략되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학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Scott M.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1572-1598* (Leiden: Boston: Brill, 2000)는 베자의 역사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 논문에 빚진 바가 크다. 단지 베자의 시대적 고민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항이라는 입장을 확립하게 한 1572년 8월 성 바돌로매 축일에 일어난 대학살이 그에게 끼친 영향과 당시 제네바의 상황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제기된 논제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의 글 『시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권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프랑스 종교전쟁의 역사

### 1. 앙부아즈의 음모(Conspiracy of Amboise, 1560.3.17.)

1559년 6월 말, 앙리 2세가 뜻밖에도 마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다(1559.7.10.). 종교재판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박해의 정점을 찍었던 왕이라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2세(Francis II, 1544-1560)에게 프랑스 위그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프랑수아 2세는 병약했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의 통치권은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 1519-1589)에게 있었다. 사실, 프랑수아 2세는 15살 반으로 법적으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카트린의 섭정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다만, 섭정의 합법적인 계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의의 주제로 떠올랐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트린과 기즈(Guises) 공과의 제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왕후 카트린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즈 공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당시 프랑스에는, 본토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은 왕국의 통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혈통에 따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서로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즈 공과 왕위를 계승한 프랑수아 2세의 어머니와 제휴를 맺게 되었다.<sup>4</sup> 이로써 왕족들이 국왕을 후견하여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삼부회에서 왕족의 수가 열세에 놓이게

<sup>3</sup> 강남수, “기즈 가의 호전적 가톨릭주의,” 582.

<sup>4</sup> 기즈 공이 앙리 2세의 죽음 이후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지는 다음을 참조하라. 강남수, “기즈 가의 호전적 가톨릭주의,” 『동국사학』 제57권(2014), 582-83.

되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왕후 카트린과 기즈 공과의 제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앙리 2세의 박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위그노들은 당시 섭정의 자격은 프랑스의 관습에 따라서 “왕족들에게 특히 근친으로서 확고한 명성을 향유하고 있던 나바르의 왕과 콩데 공(Louis de Condé)”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sup>5</sup> 위그노들은 왕후 카트린이 기즈 공과의 제휴를 통한 불법적 섭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즈 공의 종교적 박해에 저항할 합법적 시도를 찾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프랑수아 2세는 15세 반으로 법적으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섭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의제기는 섭정의 무효가 아닌 섭정의 적법성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위그노들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섭정에서 왕을 구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얻었고, 그 대안으로 섭정의 적법한 자격을 갖춘 부르봉 가문의 나바르의 왕과 콩데 공을 섭정의 통치자로 내세웠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섭정에서 왕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은 위그노 시유드 라 르노디(Sieur de la Renaudie)는 이 일을 실제로 계획하고 모의하였다.<sup>6</sup> 칼빈은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계획이 실행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반면,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수인 법학자 오토망은 이 계획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베자는 “은근한 지지”를 보냈다.<sup>7</sup> 베자는

5 강남수, 『프랑스 종교개혁사』 (서울: 그리스, 2000), 41. 위그는 법학자 오토망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제정된 공법에 근거하여 섭정의 조건을 정하였다: “프랑스 1484년에 투르(Tour)에서 열린 삼부회의 공동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 관습에 의해 제정된 법이 하나 있다. 만약 프랑스 왕위가 미성년자에게 계승된다면, 그때는 삼부회가 모여야 하며 거기서 왕을 도와 왕의 미성년 기간 동안 나라의 행정을 돌볼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1) 왕의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왕을 위해서 통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2) 삼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3) 프랑수아 왕이 미성년자여야 한다. 프랑수와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미성년이 아니었지만, 섭정의 정당성이 논의의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

6 기즈 공의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횡포로 인해 위그노파는 “가톨릭교회라는 마스코트 가장한 탐욕스러운 사제단으로부터 국왕을 멀리 떼어 놓아야 하는 임무”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가담한 위그노들은 “기즈가의 오랜 계획을 명백히 드러나게 한 모든 전사들” 내지 “압제와 잔혹한 교황권에 대항하여 신앙과 국왕과 충실한 백성들을 지키던 자”로 간주되었다. F. Charbonnier, *La poésie française et les guerres de religion 1560-1574* (Geneve, 1970), 72. 강남수, “기즈 가의 호전적 가톨릭주의,” 583 재인용.

7 Calvin, *J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Kunitz, E. Reuss, vol. 17 (Frankfurt am Main: Minerva, 1863ff), 654. 이하 CO로 표기한다. 1559년

왜 ‘은근한’ 지지를 보낸 것일까? 베자가 분명 이 계획에 동의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베자는 당시 자신이 번역하고 있었던 시편 94편을 라 르노디에게 주었다고 한다. 시편 94편은 시편기자가 하나님께 사악한 자들을 전멸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복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8</sup> 이처럼, 시편의 배경은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등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라 르노디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칼빈이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베자이기에, 그가 라 르노디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지지의 상징적 행위로 읽힌다. 또한 그는 “이 계획을 주도한 이가 만약 나바르의 왕이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sup>9</sup>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베자는 정치적 항의를 위하여 콩데 공과 이미 논의했었을 때, 그의 태도에 실망했었기 때문이다. 베자는 그가 “침묵하는 대장”이 되려고만 했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콩데 공을 내세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sup>10</sup>

결론적으로,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라 르노디가 이끄는 군대는 앙부아즈성을 “어설피게” 습격해서 어린 프랑수아 2세를 사로잡았지만, 곧 프랑수아 드 기즈(François de Guise)의 군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1560년 3월 15-19일). 라 르노디는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에 가담한 많은 귀족들과 왕에게 신앙고백을 제출하기 위해 온 1,200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칼빈이 예견했던 대로 엄청난 피해와 박해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면, 앙부아즈의 음모와 관련하여, 칼빈과 베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한 것일까? 칼빈도 왕후 카트린과 기즈 공의 제휴로 이루어진 불법적 섭정에 반대하였고, 섭정의 통치권이 나바르의 왕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라 르노디를 신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후, 위그노에 대한

10월 3일 블링거에게 보낸 편지

8 Scott M.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1572-1598*, 19.

9 Bruce Gordon, *Calvin*, 이재근 역, 『칼뱅』 (서울:Ivp, 2018), 550-51.

10 Gordon, 『칼뱅』, 549.

폭정을 목도한 칼빈도 무력 저항에 동의하였다. 칼빈과 베자는 당시 왕의 통치권의 보호가 목적이자 목표였다. 이 맥락에서 불법적인 섭정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국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왕족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바로 깨닫고,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돕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베자와 칼빈, 둘 다 불법적으로 왕의 권한을 빼앗은 기즈 가문의 통치 아래서 참된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저항은 자명했다. 그리고 칼빈과 베자는 누가 섭정을 맡아야 하는지에 있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단지, ‘어떻게’ 합법적 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 차이를 가졌을 뿐이다. 둘 다, 어쨌든 기즈 가문의 불법, 종교적 박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저항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했지만, 그 실행 방법에서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 2. 푸아시 회담 (Colloque de Poissy, 1561)<sup>11</sup>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은 병약한 프랑수아 2세의 죽음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왕위가 9살 반인 샤를 9세(Charles IX, 1550-1574)에게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왕후 카트린은 합법적으로 섭정의 권한을 얻었고 합법적인 통치자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왕후는 프랑수아 2세 때와는 달리, 기즈 가문과 정치적 거리를 두면서 위그노를 활용하여 왕권의 강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위그노의 세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1560년대 귀족의 절반 정도가 위그노였다고 하며,<sup>12</sup> 위그노들이 1559년 파리에서 최초의 위그노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11 칼빈은 푸아시 회담을 샤를 9세가 참석하는 개회일을 종교적 자유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 “그 날은 교회들을 위해 자유가 보장된 경사스런 날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가기 매우 어려운 자유 말입니다.” 1561년 베자에게 쓴 편지 CO 18, 737; Beza, *Correspondance de Théodore de Bèze*, eds. Hippolyte Aubert, Henri Meylan, Alain Dufour, vol 3 (Geneva: Dorz, 1960-), 159. 이후 CB로 표기한다.

12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박해를 위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한 앙리 2세의 치하에서도 종교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다. 이는 당시 이미 프랑스 귀족들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였고, 정치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279-82.



또 하나의 근거이다. 이때 제네바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들의 30%에 달하는 32명이나 되었고, 그 해에 교회가 100여개가 설립되었다고 한다.<sup>13</sup>

왕후 카트린은 기즈 가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베자와 위그노의 지도자들을 푸아시로 초대하여, 가톨릭교회와의 교리적 합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찬에 대한 이해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카트린은 프랑스 개혁신교회 지도자인 베자와 콜리니 제독을 궁정에 머물게 하면서 가톨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그노파에게 관대한 생제르맹 칙령을 공포하도록 한다. 이 칙령으로 프랑스 왕은 프랑스 왕국의 보존을 위해 위그노들도 국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왕의 의지를 표명하였다.<sup>14</sup> 이 뿐만 아니라, 이 칙령으로 위그노들은 도시 밖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sup>15</sup> 이 칙령은 분명 제한적이지만,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의 종교적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칙령이다. 이로써 한 국가 안에서 ‘불평등’하지만, 두 종교가 ‘공존’하는 정치적 합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칙령은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패배이자 수치이지만, 위그노들에게는 승리였다.

### 3. 바시학살(Massacre of Vassy, 1562.3.1.)

생제르맹 칙령에 발표되자, 프랑스의 전역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3 Robert M. Kingdon, *Geneva and the Coming of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5-1563* (Droz: Genève, 2007), 145.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들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1555년을 기점으로 제네바에서 칼빈의 위치가 안정화되고, 그 세력이 확장됨으로써 칼빈은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를 칼빈주의의 선교지로 삼았다. 이로써 칼빈주의는 프랑스의 위그노 형성과 확장, 개혁신교회의 설립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 위그노는 하나의 종교파로 형성되었다. 이후 5개의 칼빈주의 교회가 앙제(Anters), 모오(Meaux), 푸아티에(Poitiers), 루딩(Loudun), 아르베르(Arvert) 등지에 설립됨으로써 독자적인 집회 장소가 형성되어 로마 가톨릭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Theodore Beza, *Historie ecclésiastique des Eglises réformées au royaume de France, depuis l'an 1521 jusqu'en 1563* (Lille, 1841), 1, 61. 강남수, “종교전쟁 전야의 위그노파 분화과정,” 『역사학연구』 제52권(2013), 333 재인용.

14 임승휘, “프랑스 종교전쟁과 관용개념의 탄생,” 『이화사학연구』 제3권(2008), 298 참조.

15 위그노파와 가톨릭파에게는 무기 휴대를 금지했다. 위그노 성직자들의 순회 설교 금지 및 가톨릭 미사에 대한 비방 설교 금지, 위그노 성직자들의 설교 시 사법관 배석 및 종교회의의 시 사법관의 승인 필요, 프랑스 국법과 가톨릭 규범의 준수 등을 이행해야만 했다(1562년 1월 칙령).

가톨릭 군중이 개혁파 집에 불을 지르고, 남프랑스에서는 격분한 위그노파가 가톨릭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톨릭교도와 위그노들은 서로에게 전쟁을 위한 하나의 불씨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1562년 3월 1일 주일, 기즈 공이 부하 장병과 바시(Vassy)를 지날 때 위그노파의 기도회와 맞닥트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위그노파는 이 사건을 ‘바시의 학살’이라고 칭한다. 기즈 공은 위그노들의 “왕에 대한 불충”과 “성직자에 대한 반역과 무례”를 학살의 이유로 들었다.<sup>16</sup> 이는 이미 왕실이 그 권위와 역량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한다. 왕실은 위그노와의 협력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예배를 허용하는 생제르맹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왕실의 왕권 강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왕실의 왕권 강화를 위한 시도는 오히려 가톨릭 진영의 분노를 자극하여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시학살로 폭발했다. 이 학살은 종교전쟁이라는 내전으로 이어져,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전쟁의 촉발자도 프랑스인이었고, 총칼로 싸워야 하는 적군도 프랑스인이었다.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적군 중에는 친척도 친구도 있는, 같은 국민, 같은 계급, 때로는 같은 가족끼리 싸우는 전쟁이었다.

바시학살로 인해 제 1차 종교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베자는 바시학살로 인한 전쟁의 먹구름에서 콩데 공이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정렬하는데 동조하였다. 그는 “이 엄청난 비극에서 나는 강제로 방관자일 뿐만 아니라 배우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sup>17</sup> 베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 여겨진다. 그는 콩데 공의 지지자로서 그리고 콩데 공이 이끄는 부대의 사제 목사로서 전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를레앙의 개혁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콩데 공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돕도록 요청하는 조력자였다. 그에게 이우는 분명하였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기즈 가문의 음모로부터 왕실을 구하기 위해서.<sup>18</sup>

16 “To the duke of Wüttemberg, 17 March 1562,” *BSHPHF* 24(1875), 212-17. 박효근, “위그노의 꿈과 좌절,” 『전쟁과 프랑스 사회의 변동』, 백인호, 이재원 편 (경기:홍문각 2017), 102-03 재인용.

17 Beza, *CB* 4, 76.

지금까지 일어난 종교전쟁의 발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부아즈 음모를 계획하게 만든 원인은 섭정의 합법성이었다. 불법적인 섭정에 무력으로 반대하는 계획에 오토망은 열렬한 지지를, 베자는 은밀한 지지를 보냈다. 단지 누구에게 섭정의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둘째, 푸아시 회담에서 왕후 카트린은 정치적 차원에서 종교적 공존을 시도하였다. 국가와 종교의 일치를 추구하던 왕정체제에서 왕권이 종교적 중립성을 띠게 된다. 이로써 국왕에게 부여된 과제는 정의 구현과 질서 확립으로 축약된다: “한 명의 명령자가 강한 자들로부터 나약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평화로운 조화 속에 살게 하듯이, 하나님과 백성은 훌륭한 덕을 지닌 왕을 원한다.”<sup>19</sup> 셋째, 푸아시 회담을 통하여 이룩한 종교적 공존은 불협화음을 낳음으로써 바시학살로 이어진다. 참된 진리를 지키려는 종교적 경건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정교분리의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넷째, 프랑스의 종교전쟁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전쟁을 치루면서 등장한다.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증폭되었다. 이 전쟁터에서 귀족들은 “강도”일 뿐이었고, “승자는 패자만큼, 때로는 패자보다도 더 잃는 것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야만인들에 대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맏소사, 우리끼리 싸우면서 승자의 영광의 트로피라니! 승자의 안녕이란 이웃의 파멸에 지나지 않는다. 승자의 부는 다른 이들의 빈곤과 몰락일 뿐이다. 승자의 기쁨은 바로 이웃들의 눈물이다.”<sup>20</sup>라는 1570년의 기록은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극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III. 성 바돌로매 축일(Le Massacre de Saint-Barthélemy, 1572.8.24.) 의 대학살<sup>21</sup>

18 Beza, *CB* 4, 259-60.

19 임승휘, “프랑스 종교전쟁과 관용개념의 탄생,” 302-03.

20 임승휘, “프랑스 종교전쟁과 관용개념의 탄생,” 299-300.

21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 에스테브(Janine Estèbe)는 경제적

## 1. 사건과정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은 전형적인 왕족의 방법인 정략결혼에서 비롯된다. 프랑스 왕실은 제3차 종교전쟁(1568.8-1570.8)의 종식을 영구히 하고자 샤를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와 위그노 왕족인 앙리 드 나바르(후일 앙리 4세)의 결혼을 시도하였다. 왕권과 위그노는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위그노는 예배의 자유를 원했고, 왕 샤를 9세와 왕후 카트린은 가톨릭 귀족들을 통제하고, 위그노파를 회유하여 종교적 문제의 결정권자가 왕 자신임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1572년 8월 18일부터 3일간 예정된 결혼식을 올렸다. 외적으로는 평화롭지만, 여전히 종교적 양극이 남아있는 결혼식을 뒤로한, 8월 22일 루브르 궁을 떠나 숙소로 돌아가던 콜리니 제독(Gaspard de Coligny, 1519-1572)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암살범은 기즈 가문과 친한 귀족 모르베의 영주 샤를 두 루비에(Charles de Louviers, Sieur de Maurevert)였다. 그는 이미 1569년에도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기즈 가문과 왕후 카트린과 그 측근들은 위그노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왕을 설득하였고, 왕은 위그노의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제거하는 명령을 내린다. 충성이 있는 바로 다음 날 1572년 8월 23일 성 바돌로매 축일, 콜리니 제독 살해로부터 본격적으로 학살이 시행되었다. 파리의 도시가 피바다가 되는 상황에서 샤를 9세는 나바르의 앙리와 그의 사촌 콩데를 불러들였다. 그는 “미사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겠소!”라고 종교적 결단을 요구했다. 가톨릭 신앙에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의 순간이다. 콩데 공은 신앙을 바꿀 수 없다고 지체하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앙리 드 나바르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두 사람은 개종을 요구받으며

---

결핍을 채우기 위한 민중의 약탈과 부유한 부르주아였던 위그노에 대한 민중적 적대감으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는 종교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깨뜨리는 오염의 근원을 정화한다는 목적 아래에 수행된 행동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쿠르제는 왕권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하는 ‘국왕의 폭력’과 파리의 가톨릭교도들이 이단을 학살함으로써 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성한 폭력’의 결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해석한다. 박효근,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과 폭력의 재구성,” 『서양사론』 제123권 (2014), 173-74.

4년 동안 왕궁에 머물러야만 했다.

## 2. 위그노의 역사 해석<sup>22</sup>

위그노들은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을까? 파리에서 벌어진 피의 학살이 제네바에 전해지자, 제네바는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위한 기도회와 스위스의 도시들과 신성로마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베자는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로 여겼고, 이 학살의 주범인 샤를 9세와 왕후 카트린을 향해 날카로운 언어로 비난하였다. 샤를 9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 왕후 카트린은 교회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단으로, 때로는 이세벨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온 위그노들에게, 그리고 두려움 떨고 있는 제네바 시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상기시켰다.<sup>23</sup> 하나는 “십자가 아래를 벗어난 교회는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격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소명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격려했다. 다른 하나는 창세기 22장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란 말씀이다. 베자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였다.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을 기록한 두 권의 책이 발간되는데, 하나는 베자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최근에 열린 프랑스 공의회에 대한 응답』(*Responsio ad orationem habitam nuper in concilio Helvetiorum*, 1573)이다. 프리스바흐라는 필명으로 출판되었다. 또 하나의 작품은 같은 해에 출판된 오토망의 『간단하면서도 진실된 이야기』(*Discours simple & véritable*, 1573)이다. 이 책은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과 그 이후의 박해를 더 자세하게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두 저자는 동일하게 학살은 용인할 수 없는 사건이며 중요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프리스바흐는 샤를 9세가 학살의 원인으로 위그노들의 왕권 탈취를 내세웠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근거라

<sup>22</sup>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51-63에 근거하여 서술함.

<sup>23</sup>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54-55.

고 일축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위그노의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고, 이후 30,000명에 달하는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sup>24</sup> 이렇게 많은 수의 백성을 한꺼번에 몰살한 의도는 개혁교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토망은 왕실이 제4차 종교전쟁을 막고자 비밀리에 콜리니 제독을 암살해야 한다고 8월 23일에 모여 의논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는 콜리니 제독의 부상으로 위그노들이 무력 저항할 것을 염려해서 학살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오토망은 명확하게 학살의 원인이 왕후에게 있으며, 그녀의 명령에 따라서 기즈 공과 그의 군인들이 다음 날을 학살을 수행한 것이라고 사건의 과정을 서술한다.

두 저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첫째,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이 8월 22일 이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다. 둘째, 이 계획이 트리엔트 공의회 합의의 적용을 프랑스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위그노 지역을 한꺼번에 멸절하는데 왕실이 동의했다. 프리스바흐는 이 학살은 “트리엔트 공의회 열매”이자 “로마 가톨릭교회가 계획한 사건 중에 첫 번째 유혈 사태”라고 표현하였다.<sup>25</sup> 오토망도 교황이 1572년 여름에 사절단을 비밀리에 프랑스 왕에게 보내, 이슬람교도와 프로테스탄트 이단자들을 제거할 임무를 결의하려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도록 왕을 설득했다고 보았다. 왕은 이 제안에 동의하기를 주저했지만, 강력한 교황의 권유로, 궁극적으로는 굴복했다. 오토망은 왕후 카트린이 같은 고향 출신의 이탈리아 관료들과 함께 이 사건을 지휘하여 프랑스 법정을 교황의 화장실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프리스바흐는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학살에 대한 책임이 왕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달리, 오토망은 학살의 주범으로 왕후 카트린과 이탈리아 출신의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비난하였다. 위그노들은 국왕 샤를 9세의 “수치심 없는 거짓말”<sup>26</sup>을 바로 알릴뿐만 아니라 위그노의 역사에서

24 Responsio ad orationem, 5-6.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59.

25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59.

26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57.

가장 비참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기억하고자 하였다. 위그노들의 역사의식이 돋보인다.

### 3. 국가저항의 길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이 이루어진 후, 프랑스에는 국가저항에 대한 급진적 목소리가 파리의 시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외 없이 완전히 복종할 뿐이다. 이는 곧 타락하고 부당한 영주나 관리-그들이 누구이든 간에-에 의해 규정된 칙령에 어떤 경우라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결의와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백성들 역시 타락하고 부당한 왕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의식을 낳는다. ... 그렇다면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저항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부당한 왕들에게는 단순히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열광적이고 과격한 재세례파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관료들에 의해 처벌되어야 할 존재라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또한 백성들이 저항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나의 의견이 분파주의적 반역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락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관료에게 저항해야 한다. 실제로 관료들의 선동적 계획에 대한 저항이야말로 치안불안을 타파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sup>27</sup>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은 프랑스에 남아있던 위그노들이 왕실의 군대에 대항하여 충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제4차 종교전쟁이 시작되었다. 위그노의 도시 라로셀(La Rochell)이 왕실이 임명한 행정관을 거부하면서, 1573년 2월 11일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2만 8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왕군이 라로셀을 침공하였다. 1천 5백 명의 적은 군력으로 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1만 2천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었다. 처참한

27 *Le reveille-matin des françois, et de leur voisins, composé par Eusebe Philadelphie Cosmopolite, en forme de Dialogues*, Edinburgh, 1574. Diefendorf, *The Saint Bartholomew's Day Massacre: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 138.

패배였다. 그렇지만 그 때 침공의 지도자였던 앙리 3세가 폴란드의 왕으로 선출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다.<sup>28</sup> 라로셀은 다섯 달 동안이나 지속된 포위공격을 버티어 내면서, 적어도 종교적으로 제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그노 사면권을 얻었다. 하지만 중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상세르(Sancerre)는 1573년 1월부터 8월까지 나무뿌리, 종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양이와 개, 쥐를 먹으면서 항전하였지만, 그들은 가톨릭에 점령되고 말았다.<sup>29</sup>

#### IV. 베자의 『백성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 (*Du droit des magistrats*, 1574)

성 바돌로매 축일은 베자에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던져주었다. 베자는 1554년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계기로 제기된 이단논쟁에서 분명하게 이단으로 규정할 자를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이라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질문이 던져졌다. 만약 이단자로 판결 받은 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황제, 왕, 군주와 같은 위정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정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단의 교리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위정자에 대항해야 하는가? 성 바돌로매 축일에 벌어진 대학살은 베자에게 국가의 위정자들의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항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던져주었다. 위그노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상황에서 프랑스에 남은 위그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국을 떠나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권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인내하라고 해야 하는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 이후, 던져진 질문들에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위그노 학자 프랑수아 오토망(François Hotman)은 『프랑코갈리아』(*Francogallia*, 1573)를, 베자는 『백성들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Du Droit*

28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 조병수 역 (경기: 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70.

29 엘리스 그랜트, 로날드 메이요, 조병수 역,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 (경기: 가르침, 2018), 52.



*des Magistrats surleurs sujets*, 1574)을, 필립 드 뒤플레시스 모르네 (Philippe Duplessis-Mornay)라는 추정되는 익명의 작가가 『반폭군론』 (*Vindiciae contra Tyrannos*, 1579)을 차례로 출판하였다. 베자의 작품은 대략 1573년 6월과 7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네바 행정장관 로제트(Roset)가 폭군에 대한 베자의 사고가 혁명적이란 이유로 책을 출판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이 때문에 책의 출판이 미루어졌다. 사실, 백성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폭군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 베자의 신학은 “일종의 봉기 신학”이자 “혁명의 신학”이었다.<sup>30</sup> 그래서 그는 이 책을 1574년에 익명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하였다.<sup>31</sup> 그리고 1550년 마그테부르크 신앙고백서의 새로운 편집판으로 가장해서야 출판할 수 있었다.<sup>32</sup> 베자의 책이 사실 오토망의 책보다 더 정치적이다. 오토망의 책보다 좀 더 폭넓게 성경의 역사와 자연법을 들어 변증적 색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때문이다.<sup>33</sup> 그러면, 베자는 위그노의 신앙을 이단으로 규정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후원을 받은 왕과 그 권력에 대항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신학적으로 답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치적 언약 관계

베자는 왕의 직책을 두 가지 언약 관계로 설명한다. 우선,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에게 정치적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왕의 직무는 십계명의 두 부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국왕은 “이생에서의 질서와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직무를 올바르게

30 Shawn D. Wright,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15), 34.

31 콩테(Condé)에게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증원군을 부탁하기 위해 갔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익명으로 출판하게 된다는 설과 프랑스 리옹에서 무기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Shawn D. Wright, *Theodore Beza*, 34.

32 Beza, *Right of Magistrates*, trans. Julian H. Franklin (New York: Pegasus, 1969), 99.

33 Manetsch,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67.

수행해야 한다. 최고위정자로서의 왕이 수행해야만 하는 이 직무가 왕의 권위를 제한하는 척도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위정자로서의 권위를 받은 왕은 백성에 의해서 선출된다. 백성이 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 베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분자'를 구분한다. 백성들을 위한 국왕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최고위정자로서 국왕을 선출한다: "백성들은 위정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위정자가 선출된다."<sup>34</sup> 그러므로 위정자와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떼,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다. 목자는 무리를 지키는 자로서 존재하지, 무리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선생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sup>35</sup> 베자는 성경에서 그 실례를 찾는데,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36</sup> 비록 다윗 왕 이후에 왕위가 세습되었으나, 왕위는 백성의 승인을 받은 후손에게 이어졌다. 다시 말해서, 재임자와 관련하여 선택된 자로, 백성의 선택에 의존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의 정치적 직책을 만든 '창시자'이며 '보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시지만,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배자 선출의 투표권과 동의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언약 관계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로써 최고위정자로서의 왕과 사적 개인으로서의 백성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베자는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프랑크부족, 프랑스 왕조의 역사와 에스파냐, 폴란드, 이탈리아, 잉글랜드 등에서 이루어진 국왕의 축성식에서 최초 계약의 흔적을 찾아서 제시하였다.<sup>37</sup>

정치적 언약관계에서 백성은 국왕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에서만, 국왕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중세의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국왕

<sup>34</sup> Beza, *Rights*, 104.

<sup>35</sup> Beza, *Rights*, 104.

<sup>36</sup> Beza, *Rights*, 104.

<sup>37</sup> Beza, *Rights*, 115-24. "프랑코갈리아"란 책에서 오토망은 상당히 길게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다. 베자의 설명은 이에 대한 축소판이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 208.

은 최초의 계약에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보호해야하며, 백성은 국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양측의 상이한 의무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세운 국왕은 신적 권위를 보증 받지만, 백성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그 권한이 제한된다. 이러한 지배자와 백성의 상호견제가 지배자의 압정과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약속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배자는 약속의 두 조건에 주목한다. 첫째, 위정자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로서 모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이 우위권을 지닌다.<sup>38</sup> 둘째, 백성이 위정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담보한다: “나는 백성이 위정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군주나 몇몇 영주들에 의해서 지배되기를 희망하는 백성이 그들의 위정자들보다 앞서 있으며, 따라서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sup>39</sup>

## 2. 자연법

최고의 위정자로서 왕과 백성들의 정치적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각자 개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의무와 맹세를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와의 약속이 깨어질 때, 저항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왕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를 폐위할 자격도 있다.”<sup>40</sup> 하지만, 배자는 여기에서 주요한 하나의 전제를 내세운다. 그는 위정자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저항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의 두 가지, 믿음의 하나님의 법과 이웃 사랑의 자연법이다.<sup>41</sup> 십계명은 배자에게

<sup>38</sup> Beza, *Rights*, 102.

<sup>39</sup> Beza, *Rights*, 104.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위그노 정치학자인 오토망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백성은 왕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 그러나 백성 없는 왕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왕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그러나 왕국은 영원하며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Hotman, “Francogallia,” in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trans. Julian H. Franklin (Pegasus: New York, 1969), 79.

<sup>40</sup> Beza, *Rights*, 103.

있어서 보통법으로서 만민법(ius genitium, ius commune)이다. 고로 십계명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나, 국가공동체를 세우는 법체제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기초한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국가의 위정자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직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정자들은 맡겨진 직무를 십계명에 따른 신법과 자연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베자가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만민법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장하게 된 신학적 근거는 영혼이 지닌 희미한 이성의 역할이다: “첫 사람의 타락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인 지성과 의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sup>42</sup>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기독교국가의 법체계를 세울 수 있다. 키케로의 『국가론』(*De re publica*)이 그 실례이다. 이런 사유는 로마서 2장 14-15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엿볼 수 있다. 베자는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데,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서 자연법이다. 이 법이 이방인들의 윤리적 행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민족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연적 법을 양심에 비쳐 윤리적 판단에서 잘못을 범했다는 대조로 설명한다.<sup>43</sup> 여기에서 베자의 관심이 선과 악의 윤리적 판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가? 타락 후 희미해진 이성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의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양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야만 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법의 적용 내지는 실천은 그리스

41 Beza, *Rights*, 101.

42 Theodre Beza, *Master Bezaes Sermons upon the First Chapters of the Canticles of Casnticles*, trans. I. Harmar (Oxford, 1587), 1.4.2.

43 Beza, *Annontationes*, 1598, pt. 2, 15-16.

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확신하면서 내적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내적인 증언이다.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영적 결합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마치 몸과 결합된 영혼이 몸에 작용하여 영향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공상과 환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중생과 성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본성적인 부패’에서 자유롭게 하며, 의지를 결정하게 하고 의를 갈망하도록 이끈다.<sup>44</sup>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진정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베자는 양심의 ‘자연적 형평’과 ‘자연적 공정’을 중시한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라도 자연의 공통적 법칙들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자연적 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올바른 길을 잃었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 3. 저항의 주체

베자는 저항의 주체로 최고위정자의 정치적 언약관계의 합법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불법적 폭력에 의한 국왕에 대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적 개인에게 저항의 이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국왕이 폭군이 되었을 때는, 저항의 조건이 국가의 임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맥락에서 베자는 언약에 의해 선출된 최고의 위정자와 사적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완충지대로서의 하급 위정자에게 저항의 자리를 매긴다. 하급 위정자는 “법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전쟁 행위를 담당하건 군주 제도 안에서 왕보다는 나라의 관료로 불리는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sup>45</sup> 공작, 백작, 남작과

<sup>44</sup> Beza, *Christian Faith*, 4.13.

<sup>45</sup> Beza, *Rights*, 110.

같은 귀족, 시장, 영사, 지방행정관과 시의회의원 등의 시 행정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급위정자들은 국가공동체 안에서 법과 법에 의한 질서를 보호하며, 법의 질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하급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 의무를 수행하느냐이다. 베자의 시선은 국왕과 구별된 국가의 관료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들은 분명 상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은 본래 통치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우선시하는 임무가 주어졌음을 인지해야 한다.<sup>46</sup> 왜냐하면 통치자 자신이 그의 주권 시행이 실제로 착수되기에 앞서, 그의 서약에 붙여진 조건 하에서 주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국왕 자신이 후에 관료들에게서 서약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인준은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교체로 인한, 옛 권한에 대한 단순한 새로운 인정일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왕과 나라의 관료들 사이에 상호 의무가 있음이 분명해진다.”<sup>47</sup> 그러므로 나라의 모든 통치는 국왕의 수중에 있지 않으며, 마치 하급 관리들이 그들의 등급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맡으며 서로서로에게 모종의 조건 가운데 있는 것같이, 국왕은 통치의 최고 등급일 뿐이다. 국왕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폭군이 되었을 때, 국왕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도와야 할 중간계층의 관리들에게 국왕을 폭군으로 만든 책임이 있게 된다. 최고위정자로서 국왕이 약속의 조건을 깨고 자신의 임무를 공평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약속관계에 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하급위정자에게도 주어진다.<sup>48</sup> 하급위정자의 임무는 최고위정자로서의 국왕이 정치적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자의 하급위정자의 저항은 “직분”에 따른, 직분의 올바른 임무 수행에 달려있다.

#### 4. 저항의 조건

베자가 저항의 조건으로 최고 위정자가 ‘폭군’이었을 때, 저항이 가능하다는

46 Beza, *Rights*, 111.

47 Beza, *Rights*, 111.

48 Beza, *Rights*, 132.

조건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베자가 생각하는 폭군은 어떤 자인가? 왕으로서 최고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백성의 권위를 먼저 내세운다. 최고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이다. 그 존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존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는 사랑의 자세이다. 백성의 본분이 잘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위정자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선생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생이 존재함으로써 선생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학생으로 인해 생겨난 관계 형성으로서 선생은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권위가 지속된다. 선생은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의미를 수행할 때 권위가 따른다. 그러므로 최고 통치자가 그 의무에서 벗어날 때, 위정자들이 그들의 의무에서 이탈할 때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진압하는 것이 합법적이다.<sup>49</sup> 그렇기 때문에 영도를 탈환하여 불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폭군에게 백성의 저항은 정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합법적으로 국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군으로 바뀌었을 때이다. 백성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최고위정자로서의 자리에 오른 국왕에게는 서로의 합의하에 이끌어 낸 약속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sup>50</sup> 그러므로 하급위정자는 최고위정자로서 왕이 그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왕의 명령이 국가의 공평과 보편적 법인 자연법에 기초한 정치적 체제에 명백하게 어긋날 때 저항할 수 있다. 공평과 자연법에 기초한 정치적 체제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법으로서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안에 남아 있는 준칙들과 공통 원리들에 기초하는 정의의 보편 규칙은 너무도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명백히 그것에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인간들 사이에서 선하거나 유효해서는 안 된다.”<sup>51</sup> 최고 위정자로서 국왕이 국가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의 자연법을 제시한다. 이 법은 십계명에 기초한 것으로, 기독교공동체

49 Beza, *Rights*, 107.

50 Beza, *Rights*, 124.

51 Beza, *Rights*, 124.

의 헌법적 기초로서 이를 척도로 삼아 국왕의 명령을 판단해야 한다.

국왕의 명령이 국가의 기본법에 위반된다는 확신에 도달했을 때, 하급위정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합법적인 정치체로서의 프랑스의 삼부회와 같은 합법적인 공적 권위와 공동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위정자에게 호소한다. 하급위정자가 개인적 양심의 확신에서 저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합법적인 조직체(Estat)의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sup>52</sup> 하급위정자가 임의적으로 저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확신에 따라서 최고위정자가 바른 목표를 찾아 걸어가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베자가 합법적인 저항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두 번째로, 합법적으로 주어진 모든 처방을 시도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정이 이어질 때, 마지막 단계에서 무력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처럼, 왕이 폭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든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만 한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임의적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자는 국왕의 임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개인적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sup>53</sup> 베자는 사적 개인의 양심적 판단을 중시하였으나, 결코 법체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 공공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법체계를 통한, “가능한 한 질서있고 평화롭게”<sup>54</sup>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무력을 통한 저항을 제안하였다.

## V. 베자의 저항론에 대한 평가와 적용

베자의 저항론이 지닌 특징은 최고위정자로서 국왕과 사적 개인의 정치적 언약을 적극적으로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데 있다. 언약의 조건은 “~을 위한 존재”라는 약속의 표현이기에, 그 약속의 파기는 저항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sup>52</sup> Beza, *Rights*, 113.

<sup>53</sup> Beza, *Rights*, 107.

<sup>54</sup> Beza, *Rights*, 107.



베자는 왕의 폭정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를 고민하고, 누가 적법하게 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세저항이론이 폭군을 정교하게 정의하였고, 그에 대한 저항권을 과감하게 선포하였지만, 명확하게 누가 저항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지 않았다. 중세에서 저항이 가능한 주체는 왕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황제나 교황뿐이다.<sup>55</sup> 그런데 베자는 국가의 계급에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직체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 저항의 주체를 자리매김 하였다. 이런 저항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근대국가로의 토대가 되지만, 베자가 바라본 왕국은 세습제에 근거한 왕정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한된 왕정체제, 백성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프랑스의 왕정체제는 국왕과 사적인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다. 국왕을 위해 백성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국왕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저항의 근거가 제시된다. 국왕과 백성의 정치적 언약관계를 파기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제가 중요시된다.

베자의 관심은 하급위정자의 저항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근거로서의 자연적 법의 올바른 적용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베자의 관심은 옳고 그름, 정당성과 부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이성과 양심에 근거하여 자연법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백성들 각자가 윤리적 판단의 주체이자 저항의 주체라는 존재론적 인식을 확장하였다. 백성으로서의 각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존재론적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로서, 그 날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인 율법이 새롭게 다가온다. 베자는 그의 신앙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단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율법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 다른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두렵게 했다면, 지금은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55 임승희,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의 정치이론 (1572-1584),” 『프랑스사연구』 (2006), 18.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이끌어 선한 행위를 하며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합니다. 이전에는 단단하고 견딜 수 없는 멍에라고 여겼던 반면, 지금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영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영의 확실한 증거인 믿음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슬픔은 어떤 절망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우리는 더욱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화심이나 인내는 확실한 단계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화심, 죄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부터 (보편적으로 회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간의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교정을 통해서 참된 인간으로 끝맺는다.<sup>56</sup>

베자는 여기에서 올바른 윤리적 행위를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는 윤리적 행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계시되었다. 이때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을 넓은 의미에서 포괄한다. 이 율법에 따른 질서가 본성상으로 주어진다. 이 질서의 회복은 성령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성과 조화가 지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이자 교제이다. 셋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것인데, 처방을 한 후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무엇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판단한 후에 저항해야 한다.<sup>57</sup>

베자의 저항이론은 저항의 주체를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저항의 의무를 강조한다. 베자는 폭군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주체를 개인에게

<sup>56</sup> Beza, *The Christian Faith*, 4.29.

<sup>57</sup> Beza, *Rights*, 130.

주어진 임무를 넘어서 국가 공동체 전체로 확대시킨다. 국가가 최고위정자로서의 국왕과 사적 개인과의 연약관계 위에 세워졌기에 국왕이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적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항의 주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뜻을 윤리적 판단의 출발로 삼은 베자의 신학적 근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세속 인본주의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을 혼돈하기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둘째, 윤리적 판단의 척도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근대국가의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신학적 차원을 넘어서 법학자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삶의 구체적 지표가 요구된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위한 실천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정교분리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사유를 이해할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저항이 시작된다.

## [참고문헌]

- Berg, M. A. van den. *Friends of Calvin*. Grand Rapids, Mich.: W.B.Eerdman, 2009.
- Beza, Theodore. *Correspondance de Theodore Beza*. 13. eds. A Dufour, Béatrice Nicollier, M. Turchetti. Genève: Droz, 1988.
- \_\_\_\_\_. *Correspondance de Theodore Beza*. 3. ed. H. Meylan, A. Dufour. Genève: Droz, 1962.
- \_\_\_\_\_. *Annontationes*. 1598.
- \_\_\_\_\_. *Master Bezaes Sermons upon the First Chapters of the Canticles of Castinckles*. Oxford, 1587.
- \_\_\_\_\_. tran. James Clark. *The Christian Faith*. Edinburgh.
- \_\_\_\_\_.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 박건택 옮김. “신하들에 대한 위정자들의 권한.” 『종교개혁사상선집』. 서울: 솔로몬, 2009, 774-823.
- Calvin, John. *J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G. Baum, E. Kunitz, E. Reuss, eds. Frankfurt am Main: Minerva, 1863ff.
- Diefendorf, Barbara. *The Saint Bartholomew's Day Massacre: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Boston: Bedford/St. Martins, 2009.
- Franklin, Julian H. *Constitutionalism and Resistance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Pegasus, 1969.
- Gordon, Bruce. *Calvin*, 이재근 옮김. 『칼뱅』. 서울: IVP, 2018.
- Grant, Alison; Mayo, Ronald. *The Huguenots*. 조병수 역. 『위그노이야기』. 경기: 가르침, 2018.
- Holt, Mack P.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 Kingdon, Robert M. *Geneva and the Coming of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5-1563*. Genève: Droz, 2007.
- Manetsch, Scott M. *Theodore Beza and the quest for peace in France, 1572-1598*. Leiden; Boston: Brill, 2000.
-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양낙홍 역. 『칼빈주

의 역사와 성격』,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Roberts, Penny. *Peace and Authority during the French Religious Wars c. 1560-1600*.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Witte, John jr. 정두메 역. 『권리와 자유의 역사』, 서울: Ivp, 2015.

Wright, D. Shawn. *Theodore Beza The Man and the Myth*. Galsgow: Bell and Bain, 2015.

강남수. 『프랑스 종교개혁사』, 서울: 그리심, 2000.

\_\_\_\_\_. “종교전쟁의 전야의 위그노파 분화과정,” 『역사학연구』 제52권(2013), 325-356.

\_\_\_\_\_. “기즈(Guise)가의 호전적 가톨릭주의 - 기즈공과 로렌(Lorraine) 추기경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제57권(2014), 575-614.

박효근.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과 폭력의 재구성.” 『서양사론』 제123권(2014), 173-74.

\_\_\_\_\_. “위그노의 꿈과 좌절.” 백인호, 이재원 편. 『전쟁과 프랑스 사회의 변동』. 경기: 흥문각, 2017, 87-121.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연구』 제15권(2006), 5-28.

\_\_\_\_\_. “프랑스 종교전쟁과 관용개념의 탄생-푸아시(Poissy) 회담(1562)에서 낭트 칙령(1598)까지-.” 『이화사학연구』 제37권(2008), 289-315.

조병수.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위그노』. 경기: 합신대학원출판부, 2018.

[Abstract]

## Beza's Understanding of national Resistance

Shin Hye Yang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The Korean Church is fac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it must answer the social agendas that cause conflict with Christian ethics. Christians have been resisting national leaders for truth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because the truth is the existential basis of Christian faith.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Beza's book, *Du Droit des Magistrats sur leurs sujets* and investigate the national resistance theory because this theory provided the theological basis for national resistance in the transition to modern society.

For this, I will first describe the historical process from the Amois Conspiracy (1560) to the Massacre of Vassy (1562), which caused the religious war, and I will explain the issues in the debate in relation to national resistance. Secondly, I will deal especially with the Massacre del la Saint-Barthélemy because this incident changed the view of resistance to the state. I will show Beza's understanding of this massacre. Finally, I will analyse his book and examine the rationale for resistance, the subject of resistance and the conditions for resistance.

**Key Words:** Beza, Natural Law, National Resistance, Political Covenant, Amois Conspiracy,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